

# 성인간호학회지(1989-2011)에 게재된 질적 연구의 동향 분석

김영경<sup>1</sup> · 황선영<sup>2</sup> · 신수진<sup>3</sup>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sup>1</sup>,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sup>2</sup>,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sup>3</sup>

##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Published b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989-2011)

Kim, Yeong Kyeong<sup>1</sup> · Hwang, Sun Young<sup>2</sup> · Shin, Su Jin<sup>3</sup>

<sup>1</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sup>3</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end of qualitative study published b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from 1989 to 2011,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through identifying its strength and weakness. **Methods:** Ninety one published qualitative studies were analyzed focusing on research methodology and research themes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During the last 22 years, the number of qualitative studies has rapidly increased and the methodology used to analyze qualitative data has been diversified. The most frequently used analytic method was a phenomenology (48.4%) and the frequency of conducting a content analysis has increased. The prevailing data collection settings were community (61.5%), followed by hospital (35.2%). Especially, many researches showed specific description on researcher's efforts to ge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tudies in individual studies presented within recent 10 years. However, it was noted that meta study using mixed methodology and secondary analysis of qualitative studies are rarely used and need to be facilitated. **Conclusion:** Nursing Researchers utilizing qualitative research should continuously make efforts to increas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ir studies and to find knowledges or strategies applicable to practice through using mixed methods or secondary analysis of individual studies.

**Key Words:** Nursing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Analysis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성인간호학회지는 1989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는 연 6회로 발간횟수가 증편되었으며 한해 평균 70여 편 이상이 발표되고 있다. 성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논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질적 연구방법론이 적극적

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질적 연구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 지식체 형성에 있어서 양적 연구가 지녔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성인간호 분야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 결과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노력은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로는 밝혀내기 어려운 다양한 간호현상과 건강 관련 요소들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양적 연구로는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내기 어려운 행동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차이가 가져오는 다양한 지식체 규명에 기

**주요어:** 간호연구, 질적 연구, 분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hin, Su Jin,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366-1 Ssangyong-dong, Choeran 330-090, Korea. Tel: 82-41-570-2491, Fax: 82-41-574-3860, E-mail: ssj1119@sch.ac.kr

- 본 논문은 성인간호학회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in 2011.

투고일 2011년 12월 15일 / 수정일 2011년 12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8일

여한 바가 크다고 본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3년간 성인간호학회지에 출판된 전체 논문에서 질적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5%로 2004~2006년의 5.2%에 비해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성인간호학회지에 투고된 총 34편의 질적 연구물 중 약 38%인 13편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Hwang et al., 2010) 질적 연구의 방법 및 글쓰기 등에 대한 숙고와 필요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책을 신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질적 연구물에 대한 분석과 고찰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연구자별로 매우 다양하고 적용하고 있는 질적 연구의 고유한 방법론에 따른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질적 연구는 간호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고 간호현상에 적절한 간호중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양적 연구의 세계관과는 다른 주관적이고 통찰과 발견 및 해석에 중점을 두는 연구접근방법이다. 한 현상에 관하여 공통적인 핵심 개념을 발견하기 위해 귀납적 논리에 의해 인간생활 세계의 경험을 풍부히 묘사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교와 해석을 한다(Shin, 1996).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과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려는 현상의 성질이나 개념의 성숙도, 환경, 연구자의 자질 및 논제와 같은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연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질적 연구를 평가할 때는 양적 연구와는 다른 평가틀을 바탕으로 연구목적과 선택된 질적 연구방법의 관계 그리고 연구설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즉 질적 연구의 신뢰도, 타당도 및 객관도의 엄밀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연구현상의 구체적 묘사, 연구 주제의 유의성, 연구목적의 명확성, 구체적 연구 질문, 연구시작 전 편견이나 가정의 확인, 연구자의 자격, 연구참여자의 선정 맥락,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윤리적 고려 및 문헌고찰이 고려되어야 한다(Shin,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논문들을 연구방법론, 연구대상자, 연구주제 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평가자의 관점에서 질적 연구의 수준과 현황을 분석해보고 향후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될 질적 연구논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회지 창간 이후 최근까지 학회지에

출판된 질적 연구 논문을 연구방법론과 연구주제에 따라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질적 연구논문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질적 연구논문을 연구방법론 및 연구주제에 따라 경향과 특성을 파악한다.
- 질적 연구논문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여 질적 연구논문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1989년 창간호부터 2011년 8월까지 지난 22년간 성인간호학회지에 출판된 질적 연구 논문을 정형화된 분석틀에 의해 분류하여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 서술적 연구이다.

### 2.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연구방법과 연구주제 영역으로 나누었다. 연구방법은 연구방법론, 연구대상, 연구장소,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연구주제는 주요 용어와 주요 연구결과(의미구조 또는 본질)를 분석하였다.

###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98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논문 91편 전수를 분석틀에 의해 분류하고 코딩작업을 하였다. 논문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성인간호학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수집하였고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없는 4편의 논문은 출판된 학회지 논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 4. 자료분석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정성적 분석은 91편의 연구논문을 읽고 연구주제 및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내용을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정량적 분석 결과

#### 1) 시기별 질적 연구 동향

지난 22년간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 논문은 총 91편이었으며, 1989~1995년 9편에서 1996~2000년에 24편, 2001~2005년에 20편 그리고 2006~2011년에는 38편으로 질적 연구논문의 수가 양적으로 팽창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주로 현상학이나 근거이론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6년 이후에는 페미니즘 현상학이나 비판적 담론분석 등의 방법론이 사용된 연구가 발표되어 연구방법이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 2)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

논문에 이용된 질적 연구방법의 분석 결과, 현상학적 접근이 44편(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거이론적 접근 16편(17.6%), 문화기술지 9편(9.9%)의 순이었다. 연구대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3편(36.3%),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7편(1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3편(14.3%),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편(11.0%)이었다. 연구대상자수는 10명 미만이 45편(49.5%)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구대상자수는 16.9명이었다.

연구현장은 병원이 32편(35.2%), 지역사회 56편(61.5%), 노인요양시설 3편(3.3%)이었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심층면담이 87편(95.6%), 비디오 촬영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3

편(3.3%), 일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연구가 7편(7.6%)이었다. 질적 연구자료의 분석 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구는 1편으로 NUDIST 4.0을 이용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Table 2).

질적 연구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보면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Giorgi (2003, 2004)와 Colaizzi (1978)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각각 17편(18.7%), 15편(16.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거이론적 접근에서는 Strauss와 Corbin (1998)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13편(15.4%)이었다. 문화기술지의 경우 Spradley (1979)의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내용분석의 경우 15편(16.5%)이었는데 그 중 9편은 논문에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를 하지 않았다(Table 3).

질적 연구접근법에 따른 구체적 방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방법론에 따라서 연구대상(참여자)에 차이가 있었으며 현상학적 접근과 근거이론적 접근이 환자를 주로 연구대상으로 한 반면 문화기술지의 경우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수는 내용분석연구가 33.8(±31.7)로 가장 많았고 문화기술지 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9.9(±3.3)로 가장 적었다. 연구현장은 방법론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자료수집방법의 경우 현상학적 접근이나 근거이론적 접근,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는 90% 이상이 개별 심층면담이나 포커스 그룹 면담을 사용한 반면 내용분석 연구에서 일지작성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 3)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에서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연구주제를 분

Table 1. Trend of Number and Methodology of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to qualitative research	1989~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1
	n (%)	n (%)	n (%)	n (%)
Phenomenology	6 (66.7)	15 (62.5)	10 (50.0)	13 (34.2)
Grounded theory	0 (0.0)	5 (20.8)	4 (20.0)	7 (18.4)
Ethnography	1 (11.1)	3 (12.5)	2 (10.0)	4 (10.5)
Content analysis	2 (22.2)	1 (4.2)	3 (15.0)	9 (23.7)
Feminist research	0 (0.0)	0 (0.0)	0 (0.0)	2 (5.3)
Critical narrative analysis	0 (0.0)	0 (0.0)	0 (0.0)	1 (2.6)
Others	0 (0.0)	0 (0.0)	1 (5.0)	2 (5.3)
Total	9 (100.0)	24 (100.0)	20 (100.0)	38 (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Research

(N=9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Min	Max
Methodology	Phenomenology	44 (48.4)			
	Grounded theory	16 (17.6)			
	Ethnography	9 (9.9)			
	Content analysis	15 (16.5)			
	Others	7 (7.7)			
Participant	Patient	33 (36.3)			
	Patient's family	4 (4.4)			
	Health professional	13 (14.3)			
	Nursing student	10 (11.0)			
	General adult	14 (15.4)			
	General elderly	17 (18.7)			
Sample size	< 10	45 (49.5)	16.9±20.5	3	107
	10~19	29 (31.9)			
	20~29	5 (5.5)			
	≥ 30	12 (13.2)			
Research field	Hospital	32 (35.2)			
	Community	56 (61.5)			
	Long term care facility	3 (3.3)			
Data collection †	Interview	87 (95.6)			
	Video	3 (3.3)			
	Journaling	7 (7.6)			
Computer-aided analysis	Yes	1 (1.1)			
	No	90 (98.9)			

† Multiple choice.

석한 결과, 현상학적 접근은 돌봄, 가족의 경험, 삶의 경험, 질병경험, 생활경험, 건강행위 경험, 임상실습경험 등이 주요 용어로 나타났고, 근거이론적 접근이 적용된 연구의 주요 용어는 경우 의사결정과정, 회복과정, 적응과정 등이었다.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는 건강개념, 질병의미, 시간경험 등이 주요 용어였으며 내용분석의 경우 웰빙, 실습소속감, 임상적 판단 등이 주요 연구주제였다. 이밖에 페미니즘 연구에서는 여성이 주요 용어였으며 대화분석의 경우 대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간호사-환자 관계, 비판적 담론분석 연구의 연구주제는 역할갈등이었다(Table 5).

## 2. 정성적 분석결과

### 1)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결과

1990년대의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시도된 질적 연구를 많이 시도하였고, 인터뷰를 통한 귀납적 접근법으로 경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으로 인터뷰 자

료가 의미하는 바를 범주화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특징적으로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언급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통계적인 절차에 의한 양적 연구가 정확한 수치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제시되는 반면, 자료수집과 분석에 연구자가 도구로 사용되는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결과와 신뢰도와 타당도가 얼마나 보장되는지가 연구의 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연구결과와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과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틀에 맞추어 분석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방법의 엄밀성, 즉, 연구과정 및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시한 학자의 분석방법과 절차를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현상학적 연구의 경우 초창기에는 Colaizzi의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78년

이후 정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Colaizzi의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에 비해 한국에서 워크숍을 두 차례 개최하여 자신

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보여준 Giorgi의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훨씬 증가하였다. Shin, Kim과 Yang (2006)의 연구와 Jeong과 Kim (2007)의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함께 현상학적 접근의 경우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나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범주화에서 한 단계 나아가 상대적 일반화가 가능한 기초적인 이론개발단계까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관련된 일 연구로서 ±실 환자의 입원 경험 연구(Yang, 2008)를 통해 신체성, 시간성, 공간성, 및 관계성의 실존체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연구결과에 철학적 사유의 깊이를 더하였다.

근거이론연구의 경우 개방코딩, 축코딩과 선택코딩의 단계를 거쳐서 범주화 결과와 패러다임 모형, 유형 등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던 1990년대와 달리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실제이론개발 단계까지 발전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과정(basic sociopsychological process)을 밝힌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이론을 구축하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Kim (2002), Kwon과 Yeum (2003), Yi 등(2003), Kim (2007)의 연구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이론 및 도구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Corbin과 Strauss (2009)는 근거이론적 접근에 대한 3차 개정판에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맥락과 과정에 대한 소개와 이론적 통합을 강조하였다. 즉,

**Table 3.** Specific Method of Data Analysis

Analytic methods	n (%)
Phenomenology	44 (48.4)
Van Manen	8 (8.8)
Van Kaam	3 (3.3)
Giorgi	17 (18.7)
Colaizzi	15 (16.5)
Others	1 (1.1)
Grounded theory	16 (17.6)
Strauss & Corbin	13 (15.4)
Glaser & Strauss	3 (3.3)
Ethnography	9 (9.9)
Spradley	4 (4.4)
Agar	3 (3.3)
Fetterman	1 (1.1)
Others	1 (1.1)
Content Analysis	15 (16.5)
Polit & Hungler	1 (1.1)
Neuendorf	1 (1.1)
Krippendorff	1 (1.1)
Downe-Wamboldt	3 (3.3)
Others	9 (8.8)
Other methods	7 (7.7)

**Table 4.** Differences related to Approaches of Qualitative Research

(N=91)

Variables	Categories	Phenomenology	Grounded theory	Ethnography	Content analysis	Others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Participant	Patient	16 (34.8)	11 (68.8)	4 (40.0)	2 (13.3)	0 (0.0)
	Patient's family	3 (6.5)	1 (6.3)	0 (0.0)	0 (0.0)	0 (0.0)
	Health professional	4 (8.7)	1 (6.3)	0 (0.0)	4 (26.7)	4 (100.0)
	Nursing student	4 (8.7)	0 (0.0)	0 (0.0)	6 (40.0)	0 (0.0)
	General adult	7 (15.2)	3 (18.8)	1 (10.0)	3 (20.0)	0 (0.0)
	General elderly	12 (26.1)	0 (0.0)	5 (50.0)	0 (0.0)	0 (0.0)
Sample size		13.9±18.4	12.0±4.2	9.9±3.3	33.8±31.7	24.5±27.9
Research field	Hospital	14 (31.1)	8 (50.0)	2 (20.0)	5 (35.7)	3 (75.0)
	Community	30 (66.7)	8 (50.0)	7 (70.0)	9 (64.3)	0 (0.0)
	Long term care facility	1 (2.2)	0 (0.0)	1 (10.0)	0 (0.0)	1 (25.0)
Data collection	Interview	43 (93.5)	15 (93.8)	9 (90.0)	11 (73.3)	2 (50.0)
	Interview & video	0 (0.0)	0 (0.0)	1 (10.0)	0 (0.0)	2 (50.0)
	Journaling	1 (2.2)	0 (0.0)	0 (0.0)	3 (20.0)	0 (0.0)
	Interview & journaling	2 (4.3)	1 (6.3)	0 (0.0)	1 (6.7)	0 (0.0)

Table 5. Themes according to Approaches to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Themes
Phenomenology	Caring (3), lived experience of family caregivers (3), lived experience (3), lived experience of patients (3), life experience (2), health behavior experience (2), nursing practice experience (2), emotional response (2),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2), conflict/coping (2), mind control, abuse, experience of adult with hypertension, experience of admission, resources of hope, wishes, weight control, smoking cessation experience, unkind behavior, Yangsaeng experience, self-care, aging experience, healing experience, adaptation experience, restoration experience, aging experience, self-esteem, self-transcendence experience, hardiness, job experience, emotional support, experience of dietary life
Grounded theory	Experience of decision making (3), recovery process (2), adjustment process (2), treatment experience, caring experience, therapy seeking experience, turnover, experience process of physical restraints, parting experience, multiple role, quality of life, psychological adaptation, Tai Chi experience
Ethnography	Health concept, health behavior, meaning of sickness, experience of patients with bladder cancer, meaning of sickness, coping process, family breakdown, temporality, notion of death, transition to parenthood
Content Analysis	Caring (2), death (2), home care, caring, supporting, chest pain, well-being, clinical judgment, interpersonal relations, male hospital nurses' experience, belongingness at apprentice course, health-related experience, emotional expression about death, conflict experience, Clinical practice
Feminist research	Illness experience of women with breast cancer, experience of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women with attempted suicide
Conversation analysis	Nursing, conversation, nonverbal communication, nurse-patient relations
Critical narrative analysis	Conflict

패러다임 모형 등은 분석을 위한 일종의 도구일 뿐 주요한 결과는 과정 및 이론적 통합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근거이론적 접근에서 연구결과의 질을 확보하여 이론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한 Corbin (2004)의 방법론에 따라 Shin (2008)의 연구에서는 이론적 표본추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 2)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결과

질적 연구는 개념이나 주제에 대해 밝혀진 사실이 없거나, 선행연구 및 개발된 측정도구의 부재, 양적 연구결과와의 간격을 줄임, 혹은 문화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경험의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골수이식 환자(Lee, Kwon, & Kim, 1997), 결장루 보유 환자(Choi & Kim, 1997), 신장이식수혜자(Yi, 1999), HIV 환자(Kim & Lee, 2000), 혈우병 환자(Kim, 2002), 남자 임상간호사(Ahn, Seo, & Hwang,

2009)의 경험 등에 대한 연구는 희귀 질환이거나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 양적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결과를 제공하였다.

또한 노인의 죽음관(lee & ko, 1999), 민간치유 관행(cho, 2001), 한국 유방암 환자의 질병체험(Park & Yi, 2009) 등의 연구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실질적인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적 간호이론 및 간호중재 개발과 간호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질적 연구의 주제가 현상에 대한 초기 이해단계의 주제에서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 및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간호이론 및 도구개발 차원의 주제로 진화하여 연구의 적용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논 의

지난 22년간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논문을

**Table 6.**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on Research Theme in Qualitative Analysis

Authors (year)	Participants	Methodology	Key words
Ahn, Seo, & Hwang (2009)	20 male hospital nurses	Content analysis	Male nurse, Employment, Gender identity, Motivation
Cho (2001)	10 elders	Ethnography	Meaning of sickness, Cultural approach, Elderly, Health care, Sociocultural environment
Choi & Kim (1997)	9 patients with ostomy	Ethnography	Ostomate, Difficulty, Coping process
Kim & Lee (2000)	6 participants with HIV/AIDS	Phenomenology	Experience of people with HIV/AIDS, Phenomenological study
Kim (2002)	14 patients with hemophilia	Grounded theory	Patients with hemophilia, Adjustment, Uncertainty, Grounded theory
Lee & Ko (1999)	9 elders in Chonbuk province	Ethnography	Elderly, Notion of death
Lee, Kwon, & Kim (1997)	7 patients had bone marrow transplantation	Grounded theory	Bone marrow transplantation, Treatment
Park & Yi (2009)	10 women with total mastectomy	Feminist phenomenology	Breast neoplasm, Mastectomy radical, Feminism, Life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Yi (1999)	20 kidney recipients	Grounded theory	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s, Adjustment, Strategies, Grounded theory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질적 연구논문의 양적 증가와 연구방법론의 다양화이다. 특히 보편적인 현상학이나 근거이론적 접근 이외에도 문화기술지, 해석학적 대화기법, 담론분석기법 등을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간호학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여겨진다. 또한 방법론이 점차 구체화되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엄밀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논문이 증가하였음은 질적 연구논문의 질적 향상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간호현장에는 급성기 환자와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 노인 및 호스피스 대상자 등 다양한 질병과 장애로 인해 실존적 본질에 위협을 받는 간호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게 전인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전인간호를 위해서는 환자나 대상자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임상현장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으며 간호술기 위주의 업무수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자 및 간호대상자

의 경험에 대한 간접적이거나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연구방법의 측면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먼저 자료수집의 측면에서 일대일 심층면담이 주를 이루던 초기와 달리 비디오 자료나 일지 등 다양한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둔 연구뿐 아니라 대화분석 등을 통해 간호사-환자 관계,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 역동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간호실무 및 간호연구 측면에서 새로운 의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대부분 질적 자료를 관리하고 분석함에 있어 워드프로세서를 활용하여 녹음자료를 필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자료분석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은 아직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집된 자료를 추상화하고 개념화함에 있어 아직까지 연구자의 민감성을 중요한 분석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최근 질적 자료분석에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자료를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olloway

& Wheeler, 2010). 본 연구에서도 내용분석을 연구방법론으로 선택한 경우 연구의 표본 수가 평균  $33.8 \pm 31.7$ 명이었으며, 그리고 점차 질적 내용분석 연구논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향후 자료분석에서 이러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효율적 자료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200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특징적으로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연구방법의 엄밀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Van Manen (2001), Giorgi (2003, 2004), Corbin (2004), Morse (2005) 등의 저명한 질적 연구 학자와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방법론을 발전시킨 학자들로부터의 직접적인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었고, 그 결과가 실제 연구에 반영되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험을 단순 분류하는 것에 그치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질적 연구는 경험의 의미를 참여자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의 최대 도구는 연구자인 만큼 연구자의 철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즉, 질적 연구결과에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숙련과 인터뷰 기술 함양 등을 통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야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내용의 측면에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접근방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개개인의 경험이 가지는 의미의 공통점을 상대적 일반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질병경험, 생활경험, 건강행위 경험 등이 주요용어로 자주 등장하였다. 근거이론적 접근의 경우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경험의 구조와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회복과정, 적응과정, 의사결정과정 등을 탐구하는데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용분석의 경우 웰빙, 실습소속감, 임상적 판단 등의 용어가 주요용어로 등장하였으며 대상자의 경험을 특별히 여성이라는 차원에 집중하여 해석하는 페미니즘 연구에서는 여성이 주요용어로 등장하였다. 이처럼 대상자나 탐구하고자하는 현상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점차 구체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양적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결과를 제공하거나 문화적인 맥락에서 실질적인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문화에 적합한 측정도구 개발뿐 아니라 한국적 간호이론 및 간호중재 개발과 간호교육

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Mixed Method를 사용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Mixed Method는 많은 차원을 가진 복잡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삶과 경험은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에서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수준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Mason, 2006). 따라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간호학에서 간호의 대상인 인간과 복합적인 차원의 건강 및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Mixed Method 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편 현재까지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는 이론 개발이나 경험적 간호지식체 개발을 위해 질적 연구결과물에 대한 이차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Yi 등(2003)은 질적 연구에 있어서 이차분석의 장점과 단점, 연구결과에 타당성 확립 전략, 그리고 접근방법 등을 탐구하여 질적 자료의 이차분석 연구 활성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질적 자료의 이차분석은 일차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념들을 생산하여 간호 지식체 창출에 기여한다(Hinds, Vogel, & Clarke-Steffen, 1997). 따라서 대부분 인터뷰 자료를 추상화하고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통해 연구자가 탐구하고자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향후 간호 지식체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출판된 개별 질적 연구논문들에 대한 이차분석의 시도가 증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지난 22년간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논문은 총 91편이었으며, 질적 연구논문의 수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주로 현상학이나 근거이론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6년 이후에는 문화기술지, 페미니즘 현상학이나 비판적 담론분석 등의 방법론이 사용된 연구가 발표되어 연구방법이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결과 최근 10여 년간 질적 연구가 방법론적 체계화와 연구결과에의 질확보를 통해 간호학에서의 지식개발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발된 한국적 실체이론을 토대로 추후에는 질적 연구결과에 근거한 도구개발과 이론을 정교화 하는 후속 연구와 메타연구(meta study)를 제언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Ahn, K., Seo, J., & Hwang, S. (2009). Content analysis of male hospital nurses'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1*(6), 652-665.
- Cho, M. (2001). Meaning of sickness for the elderly in a folk heal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3*(4), 539-550.
- Choi, K., & Kim, M. (1997). A Study on the difficulties and coping process of ostomat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9*(2), 297-312.
- Colaizzi, P.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ils, R. S., King, M.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rbin, J. M. (2004). *Corbin's Grounded Theory*. Seoul: Korea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 Corbin, J., & Strauss, A. (2009).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K. R. Shin, M. Kim, J. Kim, S. J. Shin, & J. Kang, Trans.) Seoul: Hyunmoon (Original work published 2008).
- Giorgi, A. (2003).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Workshop on the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Seoul: Qualitative Research Center.
- Giorgi, A.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Seoul: Qualitative Research Center.
- Hinds, P. S., Vogel, R. J., & Clarke-Steffen, L. (1997). The possibilities and pitfalls of doing a secondary analysis of a qualitative data set. *Qualitative Health Research, 7*(3), 408-424.
- Holloway, I., & Wheeler, S. (2010).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care*. Iowa: Wiley-Blackwell.
- Hwang, S. Y., Yong, J. S., Kim, N. S., Park, M. H., Park, Y. H., et al. (2010).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through analysis of accepted and rejected papers(2007-2009).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2*(1), 103-112.
- Jeong, J. Y., & Kim, Y. K. (2007).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adaptation experience on nursing home admission among senior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9*(2), 178-190.
- Kim, E., & Lee, M. (2000). The Experience of people with HIV/AIDS: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2*(4), 497-506.
- Kim, M. Y. (2007). ICU Patients' experience process of physical restrai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9*(4), 583-592.
- Kim, W. (2002). The Adjustment of patients with hemophil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4*(4), 635-644.
- Kwon, Y., & Yeum, E. (2003). The experience of decision making to donate orga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5*(2), 256-266.
- Lee, Y. H., & Ko, S. H. (1999). The elderly's notion of death on an island in Chonbuk provi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1*(1), 135-145.
- Lee, H. J., Kwon, H. J., & Kim, K. H. (1997). A Study on the patient's treatment experience in bone marrow transplant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9*(2), 239-249.
- Mason, J. (2006). Mixing methods in a qualitatively driven way. *Qualitative Research, 6*(1), 9-25.
- Morse, J. M. (2005). *Ethnography And Issues In Mix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Design*. Seoul: Korea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 Park, E. Y., & Yi, M. (2009). Illness experience of women with breast cancer in Korea: Using feminist phenomenolog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1*(6), 504-518.
- Shin, K. R. (1996). Criteria for critique of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2), 497-506.
- Shin, K. R., Kim, E. H., & Yang, S. A. (2006). The Experience of mind control among elderly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8*(1), 41-49.
- Shin, S. J. (2008). Grounded theory approach on the recovery process of myocardial infarction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2), 219-230.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Van Manen, M. (2001).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Workshop on the Max van Manen's phenomenology*. Seoul: Qualitative Research Center.
- Yang, J. (2008). Experiences of admission for critically ill patients in ICU.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1), 149-162.
- Yi, M. S., Kim, W., Kim, D., Ko, M., Lee, K., & Kim, Z. (2003). Turnover experience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5*(4), 531-541.
- Yi, M. (1999). Adjustment to kidney transplantation: problems and strateg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1*(4), 758-770.